

월요논단



김 봉 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최근 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돼 어린이들까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특정 세대, 계층, 사회적 약자 등을 지칭하는 단어로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의 도덕관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혐오 표현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 혐오하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매몰돼버리면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서

지금, 공감 수업을 준비할 시기

아이들은 무분별한 혐오 표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아이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혐오가 아닌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덴마크는 항상 행복한 국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 이유로 덴마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을 꼽는다.

덴마크는 정규과목으로 ‘공감 능력 키우기’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만큼 덴마크 사람들이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 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공감 수업은 단계별로 체계화돼 있지만, 보통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해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공감 능력 키우기’ 수업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감정이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감정을 개념화해보고 그 다음 옆에 앉은 친구와 서로의 감정이 무엇인지 토론해 보는 방식이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릭 바이스보드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공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 수용’하는 능력이라고 했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해도, 그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는 꾸준한 학습을 통해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고 말하며 학습을 통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시절 친구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 도운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공감 능력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공감 교육’이란 것이 존재하지만 정규 과목이 아니기에 그 영향력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뉴스에서는 이주민 아이들을 차별한다는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차별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다. 상대방을 공감하지 못한 채 혐오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공감보다는 차별을 먼저 가르키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은 혐오를 더 쉽게 접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혐오’가 아닌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공감 수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열린마당

더위에 지친 요즘, 무더위 쉼터로 오세요



김 용 만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장마철이 끝나가고 있지만 간간이 소나기만 내릴 뿐, 제대로 된 비가 내리지 않아 연일 평균기온 30℃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관내 경로당은 하나둘씩 문을 열고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운영재계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폭염속 관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로당 및 행정기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

저히 준수하면서 냉방기와 공기청정기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등을 통해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오라동은 주민센터 등 8개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고 쉼터내 무료 생수를 비치해 무더위를 피해 쉼터를 찾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강운동,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간대 별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무더위 쉼터에 관내 여러 업체가 쌀, 계란 및 그 외 간식을 후원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등 나눔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쉼터는 폭염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코로나19 재유행 철저히 대응하겠다”

도, 방역체계 구축에 주력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책 마련에 돌입해 주무.

도는 지난 22일 오영훈 제주지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회의에서 제기된 고위험군 중증화와 사망 최소화 방안, 제주지역 의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공·민간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

제주도 관계자는 “과거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으나 최근 도내 확산세가 전국보다 일찍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패턴이 바뀌고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하루에 4만 명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재유행에 철저히 대응하는 방역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 고대로그자

‘찾아가는 읍장실’ 운영 효과

○…제주시 애월읍이 지난 4월 15일 광지리와 봉성리를 시작으로 이달 19일까지 ‘찾아가는 읍민읍장실’을 운영해 총 26개 마을 방문을 완료.

이 기간에 농로 포장과 배수로 시설, 마을회관 개·보수, 가로등 설치와 보수, 도로변 꽃길 조성, 해수욕장 주변 환경정비 등 총 93건의 건의 사항이 접수됐는데 환경정비 등 27건에 대해선 즉시 처리.

애월읍 측은 “하귀2리 어촌계의 성게 채취작업 쓰레기 처리 애로사항에 대해 쓰레기 분리함을 별도 설치해 해결하는 등 적극 소통 행정에 나섰다”며 농로 포장 등 장기 검토 사항은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 2023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 전선희기자

사설

민생경제 살릴 첫 추경, 더 ‘선택과 집중’을

민선8기 도정의 역대 최대 규모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심사중이다.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안정, 고물가 경제위기 대처를 핵심 목표로 한다. 도의회가 “도민들 일상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예산이 되도록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지만 농어민 서민들 파격 지원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추경 필요성이 매우 큰 현실이다.

도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의 2022년도 첫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도 추경은 본예산보다 8510억원 증액한 7조2432억원 규모다. 오영훈 지사가 “민생경제 회복을 넘어 새 도약을 이뤄낼 사업을 담았다”고 할만큼 지역경제 살리기 집중했다. 김경학 도의장은 “힘들고 지친 도민들을 치유하는 예산이 돼야 한다. 아니다 싶으면 과감한 수술도 필요하

다”며 추경의 제대로된 편성에 무게를 뒀다.

추경은 역대 최대라는 ‘상징성’을 넘어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최대 위기인 도민 지원에 집중해야 할 당위성을 지닌다. 도의회가 더 ‘선택과 집중’ 예산심사를 추경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농어민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 필요성은 가장 크다. 농어민은 농산물가격 하락, 인건비와 영농자재 급등 현실에도 정부의 유통세 인하, 소상공인 빚 탕감, 코로나 손실보상금 등서 제외되면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폐·휴업, 고물가 등에 초유의 위기다. 추경이 도민 모두를 지원한다는 발상보다 위기의 정도와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는 예산이 돼야 한다. 아니다 싶으면 과감한 수술도 필요하

기후변화 대비한 물관리 대책 세워야

제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꼽는다면 ‘마실 수 있는 물’일 것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어서 그렇다. 지하수가 심하게 오염됐거나 더 이상 먹을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상황은 결코 일어나선 안될 일이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제주 물관리 정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제주도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는 제주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았다. 연구진은 도내 물관리 현안으로 상수도의 낮은 유수율, 농업용수의 공급체계 문제와 함께 가뭄시 비상용수 확보 방안을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5대 핵심전략

으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청정한 물환경 보전·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비 물안전 확보, 새로운 물가치 창출·확산, 제주형 수자원 조사·연구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을 발표한 박원배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의 언급이 주목된다. 현재 제주의 지하수 함양량이 기후변화로 인해 변동폭이 심해지고 있음을 환기시킨 것이다. 그런 점에서 5대 핵심전략 중 기후위기 대비 물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유럽 곳곳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물부족 사태를 겪는 것을 보면 알 것이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두번 이상 감지 못하게 수도물 사용을 제한할 정도로 심각하다. 때문에 섬의 특수성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부 고

장재춘 어머니 김해김씨 옥여(모니카·향년 94세)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2년 7월 27일(수요일)
- ▶발인일시: 2022년 7월 28일(목요일) 오전 9시
- ▶발인장소: 중앙병원(중앙병원 이회소재) 장례식장 1분향실
- ▶장례미사: 연동성당 오전 10시
- ▶장 지: 황사평 천주교 묘지

딸 장재순 사 위 지순명
재춘 문경만
재화 김대율
재희 김용기
재옥 정기호
재숙 김상기
재철 김성진

※ 연락처
장재춘 010-8606-7928 장재화 010-4146-9908
장재희 010-3698-4696 장재옥 010-3654-0117
장재숙 010-5125-8810 장재철 010-6281-9522
문경만 010-3691-1233 김용기 010-8660-4692
정기호 010-6307-5569 김상기 010-9660-8810
김성진 010-3696-377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파평윤공

여창(향년 7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

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7월 25일

부 인 현 복 순

아 들 윤 주 형

딸 윤 은 주

며느리 김 현 주

사 위 성 호 진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매춘(향년 8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7월 25일

아 들 김 경 은 며느리 문 성 미
성 은 강 미 애
딸 김 경 순 사 위 송 만 일
경 미 정 의 성
경 자 송 성 권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공 영기(前 조천읍장)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7월 25일

부 인 김 부 자
아 들 김 한 응 며느리 현 연 숙
성 훈 고 로 미
딸 김 진 옥 사 위 이 상 준
진 희 박 충 희
진 숙 강 중 주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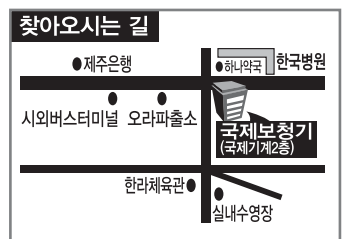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